

군산 고용 악화 심각 ... 긴급 대책 절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52.6% ... GM공장 폐쇄 가속화 해고된 비정규직 취업·금융 등 실질적 지원 없어 고통 호소

조선업 불황에 이어 한국GM이 공장을 폐쇄기로 한 군산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해고된 비정규직에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격 뿐 취업·금융 등 실질적 지원이 없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군산시 고용 동향과 이직자의 일자리 이동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52.6%까지 추락했다. 1년전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취업자수는 2016년 하반기 12만8900명에서 2017년 하반기 12만2500명으로 줄었고 실업자수는 2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

었다.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군산지역 실업률은 2016년 상반기 1.5%, 2016년 하반기 1.6%, 2017년 상반기 1.6%를 기록하다 하반기에 2.5%로 경증뒀었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기동을 중단하면서 군산 지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GM이 최근 발표한 계획대로 군산공장이 오는 5월말에 완전히 폐쇄하게 되면 군산시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한국GM 공장폐쇄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실직 인원이 6000~1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용정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희망직직 확정을 통보받은 한국GM 군산공장 정규직 해고자와는 달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위로금이나 밀린 성과급 지급 등은 전혀 없이 단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만 가질 뿐이어서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 복지자원을 받을 조건에서 벗어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금융이나 세제 혜택 등은 협력업체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일자리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긴급생계지원과 취업교육 등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1인당 평균 5000만원이 넘는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과 저리 대출도 바란다. 재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보내 기업의 신규 구인 때 우선 면접권도 희망한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언론 등을 접촉하며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현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13일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와 백악관을 찾아 '공장 정상가동과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bigkim@/군산=박금식기자 nogusu@



영광 송이도 주민 숙원 이뤄졌다 칠산훼리호 취항 ... 1일 생활권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지만 가는 게 쉽지 않은 섬 영광 송이도가 칠산훼리호 취항으로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섬 주민들의 숙원의 꿈이 이루어 졌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에 따르면 영광군 향화도에서 송이도간을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 '칠산훼리호'가 지난 30일 취항했다. <사진>

2014년 건조된 칠산훼리호는 130t급으로 여객 97명과 승용차 17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고 항화항을 출항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운항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송이도는 면소재지인 낙월도와는 사선기준 25분 거리지만 두 섬을 오가는 배길이 없었다. 송이도 주민이 면소재지인 낙월도를 가려면 범선포 계마함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염산을 거쳐 향화도에서 낙월도행 배를 타야했다. 다시 송이도로 돌아오려면 2박 3일이 걸린다. 그

나마 하루 1편 있는 배편도 끊기기 일수였다. 기상이 나빠 먼 바다인 안마도행 배편이 끊기면 발이 함께 묶였다. 근해인데도 경유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이도는 기존에 영광군 계마항에서 출항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이 1일 1회 운항에 그쳤으나 새롭게 1일 2왕복을 운항함에 따라 송이도와 내륙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도서주민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섬 주민들은 10년 민원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취항식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준 목포해양수산청 박철우 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어항, 포구의 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진드기 감염 예방교육 11월까지 정읍시보건의소

정읍시보건의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시보건의소 정읍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여성 농업인을 현장의 중간 교육자로 양성해 진드기 매개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진드기 매개 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관리 방법, 물렸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4월부터 11월까지 야생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시보건의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경우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다문화가정 교육문화 토론 한마당

부안군은 지난 3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활성화를 위한 福作(복작) 이야기 마당 글로벌 비상(飛上)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초·중·고교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중국 문화원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부안군 제공>

고창군 아산·공음면 2곳 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농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고창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오는 202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해 아산면에 희망센터와 조경사업, 행복채움터 리모델링, 배수시설 개선,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공음면에는 어울림센터와 어울마당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쉼터조성,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와함께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식 개발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한다.

군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송면 삼태마을, 신림면 입점마을에 대해서도 오는 2019년까지 왕버들나무숲 주변정비, 삼지공원 조성, 마을우물터 복원, 용추물담장 조성, 우물 및 쉼터정비, 용추 폭포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개발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농촌중심지 역할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전남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나서

CCTV·보행도로 신설 등
58억원 투입 시설물 개선

전남도가 58억원을 들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전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58억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폐쇄회로TV(CCTV) 확대 설치, 학생 보행도로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12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에 과속방지턱·안전펜스·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한다.

또 경찰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5대 강력범죄가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20억원을 들여 61개소에 CCTV를 설치해 어린이 대상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37개소에는 26억원을 들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도로 폭 9m 미만 보도·차량 혼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교통연구 결과에 따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전 읍·면지역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억원을 들여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정남진 장흥,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럽풍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원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터 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최고의 전원주택 단지

▶나주시 송촌동 동신대 인근 2차선 도로 접, 교통, 환경, 조망권 등 최상, 자연녹지 전

면적 16,200㎡ → 매가 22억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찜솥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